

여자 중학생의 신체성장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이수경 · 고애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Formation Models of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Attitudes as Related to Pubertal Physical Growth

Soo Gyoung Lee · Ae Ran Koh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2004. 4. 23.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physical growth, body criticism from others,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attitud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39 junior high school girls living in Seoul, Korea, via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and LISREL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mong three sub-variables of physical growth, the heigh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ffective aspect of body image. 2) The body criticism from others had the effect neither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nor on the affective aspect of body image. 3)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affective aspect of body image and a positive effect on the cognitive/behavioral aspect of body image. 4) The affective aspect of body imag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gnitive/behavioral aspect of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attitude. However, the cognitive/behavioral aspect of body image had the effect on clothing attitude. 5) The self-esteem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clothing attitudes.

Key words: Physical growth, Body criticism from others, Body image, Self-esteem, Clothing attitudes, 신체 성장,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신체이미지,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I. 서 론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가 인간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중요하지만, 청소년기는 급속한 신체성장과 사회성의 발달로 인해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며(송인섭, 1989), 변화된 신체에 따라 새로운 신체이미지를 형성해야 하므로 (Stuart, 1983)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 태도, 평가 등을 말하는데, 청소년기에 형성된 신체에 대한

평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윤진, 1993)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청소년시기의 적용을 돋는 반면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과도기의 적용을 더욱 어렵게 한다(Rosenberg, 1989).

그러나 신체적인 외모나 매력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신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며(Festinger, 1954)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사회 가치관이나 통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Richards et al., 1990). 또한 급격

한 신체적·생리적 변화로 인한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또래집단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유친동기가 생기고, 이와 함께 새로운 심리적·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자 자신과 또래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는 사회비교 동기도 커진다(Festinger, 1954).

따라서 청소년들은 신체성장이 자기와 비슷한 연령이나 같은 지위에 있는 동년배들과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되며, 그러한 이유에서 자신의 외모관리나 의복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동년배집단과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한다(Horn & Gurel, 1981).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성장급등과 성장의 변화는 사춘기 청소년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는 그들의 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달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변화로 인해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로, 청소년기의 신체변화는 외모관리행동과 관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류학 분야에서 청소년의 사춘기 신체발달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의복행동을 포함한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행동연구에 사춘기의 변화하는 신체적 요인들을 통합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성장과정에서 형성되는 신체이미지가 자기개념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인간행동이나 성격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이미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각 분야별로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체이미지의 발달은 개인의 발달적 맥락과 문화적 환경, 특히 성차와 관련된 문화적 가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신체, 자아, 사회·문화적인 통합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신체적성숙과 행동적응의 문제가 야기되는 청소년기에는 신체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들이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춘기 신체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성장의 정도가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및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신체이미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신체이미지가 자기존중감 및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존중감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은 신체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신체의 성장이 자기와 비슷한 연령이나 지위에 있는 동년배집단과 병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위해 자신의 외모관리와 의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여 동년배집단과 유사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Horn & Gurel, 1981). 청소년기에는 특히 의복과 외모로서 사회적 승인을 받으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의복에 더 의존하게 된다(Ryan, 1966). 이론적 배경에서는 연구변인으로 포함된 신체성장,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이미지, 자기존중감 및 의복태도 간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1. 사춘기의 신체변화

사춘기는 호르몬 수준의 증가에 의한 내적인 변화가 제 2차 성장의 발달과 성장급등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Conger, 1991). 사춘기의 신체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사춘기변화는 너무나 급속하고 개인차와 남녀 차이가 크기 때문에(Petersen & Taylor, 1980), 신체변화 그 자체보다도 자신과 타인의 심리·사회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Petersen, 1988).

사춘기의 생물학적 변화에 따른 형태학적 변화의 특성은 매력의 기전 또는 조숙자와 만숙자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사회·문화적인 변인들과 상호 작용한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와 또래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Petersen & Taylor, 1980). Brooks-Gunn et al. (1987)은 소녀들에게 사춘기변화는 놀림과 같은 타인들로부터의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외모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신체변화가 이상적인 자기에 근접하게 이루어질는지 불안해하고, 또래의 기준과 많은 편차를 보일 때 거부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신감을 가진

다(Rogers, 1985). 사춘기가 나타나는 시기와 관련하여 Tobin-Richards et al.(1983)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적기에 사춘기 발달이 이루어지는 소녀들이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이라고 여기고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2.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며 전반적인 자기 지각에 있어서 신체적인 차이가 매우 특출해지는 시기이므로(Stuart & Sundeen, 1995) 성장과 더불어 타인들의 반응과 평가를 통해 사회화되면서 경험적 자기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외모는 큰 영향을 미친다(Kaiser, 1990). 신체적 매력에 대한 기준은 가족 또는 사회 전체의 미에 대한 통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사회화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어떤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Richards et al., 1990). Levine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체중에 관한 가족과 또래의 비판에 의해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uiney and Furlong(1999)은 가족, 또래에 의한 신체평가는 신체불만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청소년기에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사회적 맥락은 부모, 또래 등 청소년 주변의 중요한 타인이다. 청소년에 대한 타인들의 태도는 청소년이 갖는 고유한 속성이나 행동의 수행 수준에 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은 청소년의 자기평가를 위한 준거의 틀로서 작용한다(Lerner, 1982). 자기존중감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통합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Harter(1990)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자기평가는 그들이 중요성을 부여하는 타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청소년들이 특히 중요성을 부여하는 영역은 외모나 신체적 매력이었다. 따라서 신체적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준거의 틀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개인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은 신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게 되는데(Kaiser, 1990), 비교기준과 지각된 차기와의 차이가 클수록 즉 부정적인 모순이 생길 경우에 불만족의 감정이 생기며 그 차이가 커질 때는 실망, 질투, 부러움, 자기비하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쉽다(Oliver, 1980). 따라서 신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여 내면화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적 기준은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러한 기준과 자신의 실제 신체모습과의 차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 불만족이 형성되게 된다.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선명, 고애란(2001)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여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이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외모를 향상시키려는 성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4.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신체적자기의 지각으로 자기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일 뿐 아니라 성숙한 후에도 자기개념의 한 평가적 구성요소이다(강혜원, 1995). 특히 사춘기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신체 변화가 의식의 중심이 되므로(Rogers, 1985), 신체 자아에 대한 만족감은 청소년기의 주 발달과제인 자기존중감형성에 영향을 주고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낄수록 신체적 부분과 자기에 대한 부정적 느낌은 더 커진다(송인섭, 1998). 김양진(1996)의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인 자기신체에 대한 만족정도가 저하되어 개인의 신체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며 이것이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인 외모지향성은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많이 열중하고 관심을 갖는가, 그리고 신체적 외모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Secord and Jourard(1953)는 사춘기의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일반적 자기존중감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자기개념 요소들 중 의복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

급되는 요소는 신체에 대한 만족이며, 이러한 신체이미지는 의복에 반영되므로(Sontag & Schlater, 1982)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는 의복의 선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Creekmore, 1974).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신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평가는 의복의 개성/자기표현, 기분향상, 신체모습향상(조선명, 고애란, 2001), 심리적 의존성, 의복과시성, 의복 만족도(이미숙, 2000)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체에 관심이 많고 열중할수록 의복을 통해 개성과 자기표현을 하고자 하며 기분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이상적인 신체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의복을 사용하였고(조선명, 고애란, 2001), 유행과 의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심리적으로 의복이 주는 분위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연예인의 외모와 웃차림을 모방하였다(이미숙, 2000). 신체이미지 내의 두 차원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감정적 차원이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명, 고애란, 2001).

5.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은 자기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로서 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정도를 말하며 자기개념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강혜원, 1995). 의복은 자아의 한 구성요소이며 자아가 형성되고 확인되는 외모의 한 측면으로 자기에 대한 정체감, 기분, 태도를 전달

하는 의미 있는 상징이며 자기가치, 자존심의 표현으로 지각되고 자기 평가의 감정적인 요소로 인정되어 신체적 만족과 관련된다(Sontag & Schlater, 1982). 따라서 한 개인의 의복에 대한 만족감은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신체만족도를 반영하며 의복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한 표시는 자기 자신에게 갖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시각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강혜원, 1995). 김순구, 윤학자(1986)의 연구에서도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심미성과 관리성은 높으나 의복의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사회적 승인성, 주의집중성은 낮게 나타나 청소년기의 자기존중감이 의복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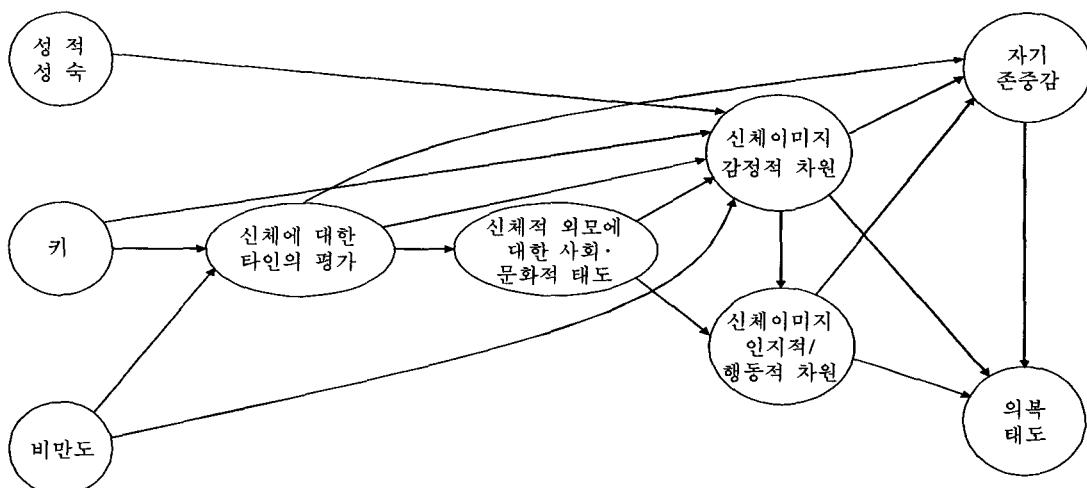
1. 연구가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가설 1> 신체성장은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신체성장은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신체성장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신체성장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가설 2>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이미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신체이미지는 자기존중감과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4>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5>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자기존중감은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측정도구

신체성장 수준: 신체성장수준은 성적성숙, 키, 비만도의 세 측면을 포함하였다. 성적 성숙은 Petersen et al.(1988)이 개발한 사춘기발달척도(Pubertal Development Scale: PDS)를 사용하였다. 여학생들의 가슴발달, 체모발달을 묻는 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 = .67$ 이었다. 키와 체중은 자유기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비만도는 키와 체중으로 신체총실지수(Rohrer Index)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Guiney and Furlong (1999)이 개발한 신체비판척도(Body Criticism Scale)

증 키, 비만도, 외모에 대해 친구, 형제, 부모, 선생님 등 청소년기의 중요한 타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6문항을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alpha = .58 \sim .69$ 로 나타났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Heinberg et al.(1995)가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 문항(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의 내면화(Internalization) 8문항과 인식(Awareness) 6문항의 총 1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각각 $\alpha = .84, .62$ 이었다.

신체이미지: Cash(1990)의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를 국내에서의 타당도가 검증된 조선명, 고애란(2001)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하위척도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차원은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행동적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정적차원은 MBSRQ의 외모평가(Appearance Evaluation)와 신체만족도(Body Area Satisfaction Scale)의 두 가지 척도로 측정되었다.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MBSRQ의 외모지향성 척도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감정적 차원은 외모평가 4문항과 신체만족도 15문항, 외모지향성은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각각 $\alpha = .56, .86, .84$ 이었다.

자기존중감: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1문항은 제거하고 9문항을 자료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 = .80$ 로 나타났다.

의복태도: 김양진(1996), 고애란, 이수경(1998), 조선명, 고애란(2001)의 선행연구에서 선택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여자중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2년 5월 11일~6월 10일에 총 443부를 회수하여 439부(강남 210부, 강북 229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PC⁺와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복태도의 구성차원을 알아보기 위한 요인분석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1> 의복태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결과

(N=439)

문항 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 1: 의복과시성			
나는 어떤 모임에서나 관심의 대상이 될만한 눈에 띠는 옷을 입고 싶다.	.79	.14	.13
같은 스타일, 같은 값의 옷이라면 눈에 띠는 색상의 옷을 선택하겠다.	.72	-.02	-.02
나는 남의 눈을 끌지 않는 평범한 옷을 선택하는 편이다.	.70	-.18	-.15
나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고르려고 노력한다.	.68	.24	.30
나는 내 몸매가 이상형에 가깝게 보이도록 옷을 입는다.	.48	.37	.37
내가 입은 옷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곤 한다.	.46	.35	.40
요인 2: 사회적 승인성			
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 비슷한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택한다.	-.02	.74	-.02
나는 새 옷을 살 때 친구들이 싫어하는 옷은 사지 않는다.	.10	.72	.13
모임에 가서 내 옷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불안해진다.	-.02	.68	.18
요인 3: 신체모습향상			
나는 옷으로 신체적 불만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02	-.02	.87
나는 내 신체의 불만부분을 가려주는 옷을 고른다.	.13	.15	.84
고유근(Eigen value)	2.57	1.94	1.93
신뢰도(reliability)	.78	.59	.74
누적변량(%)	23.39	41.00	58.50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태도의 요인구조

의복태도에 대한 요인분석(PC model, Mineigen Criteria, Varimax Rotation)을 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여러 요인에 대해 낮은 부하량을 나타낸 3문항은 제외되었다. 총 설명력은 58.50%이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나는 어떤 모임에서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눈에 띠는 옷을 입고 싶다”, “같은 스타일, 같은 값의 옷이라면 눈에 띠는 색상의 옷을 선택하겠다”라는 문항들이 함께 둑여 의복과시성이라 명명하였다. 총 6문항으로 설명력은 23.39%를 나타내었다. 요인 2는 설명력 17.61%의 사회적 승인성 요인으로 집단내의 소속감과 인정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준거집단 사람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는 행동과 태도를 나타내는 3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3은 의복을 통해 신체의 불만인 부분을 보완하려는 문항들로 신체모습향상이라고 명명하였다. 총 2문항으로 17.50%의 설명력을 보였다.

2. 신체성장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검증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델의 적합도는 $\chi^2(df = 75, N=439)$ 은 293.14이었으나 GFI는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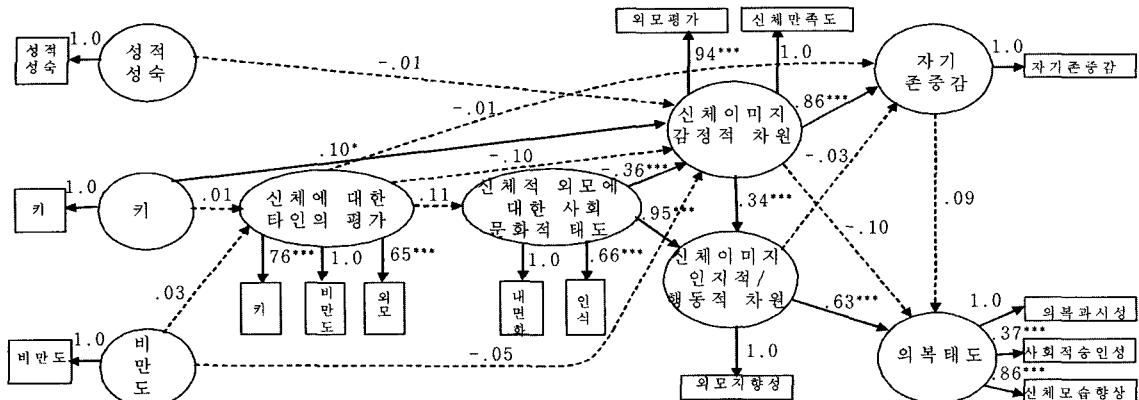
로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고 AGFI도 .87로 .90에 가까운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RMR은 .08로 .05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모형검증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여기에 제시된 관찰변수와 잠재변수간의 λ 값이 모두 유의 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여 각 관찰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성 타당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변인들이 타당성있게 측정되었음을 증명되었다. <그림 2>의 결과를 토대로 가설검정을 하면 다음과 같다.

I) 신체성장이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신체성장이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신체적 변화가 급속하고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 성장이 또래에 비해 빠르거나 늦은 것 모두 주변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성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비만이 건강과 관련되면서 성장기의 여학생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체중증가에 대한 어머니들의 관리가 증가하고, 한편으로는 어린 소녀들에 있어서는 체중이 부족한 것을 건강과 관련된 늦은 성장으로 염려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도 생각된다.

신체성장이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신체성장 요인 중 키에



<그림 2> 신체성장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서만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키의 성장정도가 또래보다 빠를 경우에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선호하고 있는 미적 이상형은 키가 큰 서구적인 형으로 이에 대한 사회비교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적성숙에서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과거에 비해 신체 성숙이 빨라지고 성적성숙과정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성숙에 따른 신체에 대한 감정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에 대한 분석 결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각각 1.89, -1.90으로 $p = .06$ 준이므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Levine et al.(1994), Guiney and Furlong(1999) 등의 선행연구들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나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외모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과정에 의해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를 내면화하지 않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이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것은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TV시청량과 TV관여도가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TV시청량이 많을수록 자

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TV관여도가 높을수록 자신과 이상적인 신체상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지각하며, 이것이 신체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즉 중학생들은 다른 청소년집단과 비교하여 신체적·생리적 변화가 크고 이로 인하여 매우 감각적이며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므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는데 주위의 의미 있는 타인들 이외의 다른 사회화 매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자기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에는 주위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면화한 결과 자기개념이 낮아지거나 신체상에 대한 자기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에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Stuart & Sundeen, 1995). 따라서 사춘기 청소년들은 신체적 변화가 의식의 중심이 되어 다른 시기보다 신체적 자아에 가장 중점을 두는 시기이므로(Rogers, 1985) 타인에 의한 신체평가를 내면화하여 먼저 신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자기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

<가설 3-1>,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조선명, 고애란(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외모의 사회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신체적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게 되면 이상적인 사회의 미적 기준은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정도가 결정된다. 또한 자신의 가치로 수용한 사회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능동적인 성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4) 신체이미지가 자기존중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이는 개인이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은 자신에 대하여 갖는 감정과 유사하여(Secord & Jourard, 1953) 신체자아에 대한 만족감은 청소년기의 주 발달과제인 자기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낄수록 신체적 부분과 자기에 대한 부정적 느낌이 더 커진다(송인섭, 1998)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2>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릴수록 자신의 의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래집단의 수용과 타인의 평가에 있어 의복과 외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나 만족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복에 의한 영향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3>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춘기에는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어 타인의 인정과 호감을 얻기 위한 의복을 착용하고 자신의 외모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4>는 채택되었다. 이는 조선명, 고애란(2001)과 이미숙(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체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일수록 의복을 자신을 과시하고 즐거집단에 동조하여 승인을 얻으려 하며 신체모습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것을 나타낸다.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5>는

채택되었는데 이는 신체이미지 내부에서의 방향성이 존재하며 자신의 신체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수록 더욱 더 신체적 외모에 열중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조선명, 고애란(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5) 자기존중감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존중감이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에는 과거와는 달리 의복은 부족한 자존심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의복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본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와 같은 이유로 직선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3. 예측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전체 효과

<표 2>의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행동적 차원, 자기존중감, 의복태도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전체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이미지의 양 차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였다. 키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는 직접적으로, 인지적/행동적 차원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검정과정에서는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며,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관련이 없었다.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자기존중감에 유의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12, 전체효과는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의 <가설 2-3>의 결과에 대해 논의된 바와 같다. 신체성장 요인 중 키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을 거쳐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신체성장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기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규명되었으며, Jones and Massen (1958)이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의 발달은 변화하는 신체와 변화하는 자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감정적 차원을 거쳐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표 2> 신체이미지, 자기존중감, 의복태도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전체효과

예측변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
				간접효과 경로
키	.096*	-	.094*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10	-.04	-.14*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36***	-	-.36***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
키	-	.03*	.03*	키→감정적 차원→인지적/행동적 차원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95***	-.12**	.83***	사회문화적 태도→감정적 차원→인지적/행동적 차원
신체이미지 감정적 차원	.34***	-	.34***	
				자기존중감
키	-	.080*	.080*	키→감정적 차원→자기존중감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01	-.12*	-.14*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	-.33***	-.33***	사회문화적 태도→감정적 차원→자기존중감
신체이미지 감정적 차원	.86***	-.01	.85***	
				의복태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	.53***	.53***	사회문화적 태도→인지적/행동적 차원→의복태도(.60) 사회문화적 태도→감정적 차원→인지적/행동적 차원→의복태도(-.07)
신체이미지 감정적 차원	-.10	.29***	.19**	감정적 차원→인지적/행동적 차원→의복태도
신체이미지 인지적/행동적 차원	.63***	-.002	.63***	

*p<.05, **p<.01, ***p<.001

로 바람직한 것, 문화적으로 규정된 기준은 열망과 이상을 품게 해주며 자신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강혜원, 1995) 우리사회에서 사회의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적 기준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의복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이었으며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도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지적/행동적 차원을 거쳐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신체성장요인 중 키와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신체이미지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빠른 신체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즉, 신체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동태적인 개념을 가지며

성장과정에서 그 시대의 이상적인 미와 유행 등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주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존중감에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 의복태도에는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이 중요한 요인이며 따라서 사춘기여자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는 청소년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기존중감과 의복태도 형성에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사춘기 여학생들의 호르몬 분비에 의해 나타나는 급격한 신체성장과 이차성징의 발현과 같은 신체성장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영향을 받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에 의해 신체적 자기가 영향을 받고 나아가 이러한 신체적 자기에 의해 자기개념과 의복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론적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검증과 직·간접·전체효과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신체성

장은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신체성장 요인 중 키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는 직접적인 양의 영향을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과 자기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 자기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과 자기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는 음의 영향을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는 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으며, 자기존중감과 의복태도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과 자기존중감에 직접적인 양의 영향을 의복태도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자기존중감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의복태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은 의복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의 양 차원에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기존중감 형성에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 의복태도 형성에는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성장 요인 중 키가 신체이미지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의 생물학적 요인이 개인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간의 자아발달에서 신체적 개념이 갖는 관계와 의미를 밝힘으로써 지금까지 행동 및 심리연구에서 무시되어온 신체성장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연구의 변인으로 통합시켰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와 자기존중감,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신체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이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 사회의 문화에 의해 개인의 자기개념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성장과 문화적 차이에 의한 자아형성과정에 따른 청소년 발달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청소년 개인의 발달과정에 보다 올바른 방향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외모에 관련된 심

리적, 신체적 건강이나 사회적 적응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효과적인 사후 처방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료수집이 임의표집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자 중학생들만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타인에 의한 영향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사회화 매체 예를 들어 TV, 잡지, 신문 등의 대중매체의 중요성이 연구변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연령에 따른 사회화 매체의 중요성과 어떤 사회화 매체가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고애란, 이수경. (1998).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7), 931-941.
 김순구, 윤학자. (1986).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남·녀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김양진. (1996). 유행의복 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송인섭. (1989). 인간 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각.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윤진. (1993). 청소년심리학. 한국 청소년 개발원. 도서출판서원.
 이미숙. (2000). *TV미니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선명, 고애란. (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해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집단별 차이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Brooks-Gunn, J., Warren, M. P., Rosso, J. & Gargiulo, J. (1987). Validity of self-report measures of girls' pubertal status. *Child Development*, 58, 829-841.
 Cash, T. F. (1990).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 In Thompson, J. K.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Pergamon Press. 1990.
 Conger, J. J. (1991). *Adolescence and youth* (4th ed.). N. Y.: Harper & Row.

- Creekmore, A. M. (1974). Clothing related to body satisfaction and perceived peer self. *Research Report 239*, Michigan : Technical Bulletin, Michigan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227-235.
- Guiney, K. & Furlong, N. E. (1999/2000). Correlates of body satisfaction and self-concept in third and sixth graders. *Current psychology: Development · Learning · Personality · Social Winter*, 18(4), 353-367.
- Harter, S. (1990). *Self and identity development*. In S. S. Feldman & G. R.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M.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Jones, M. C. & Massen, P. H. (1958). Self-conceptions, motivations and interpersonal attitudes of early and late maturing girls. *Child Development*, 29, 491.
- Kasi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 clothing :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2nd ed.). N. Y.: Fairchild Publications.
- Lerner, R. M. (1982). Children and adolescents as producers of their own development. *Developmental Review*, 2, 342-370.
- Levine, M. P., Smolak, L. & Hayden, H. (1994). The relation of sociocultural factors to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middle schoolgirl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471-490.
-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 of satisfaction deci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7, 460-469.
- Petersen, A. C. (1988). Adolescent developmen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338.
- Petersen, A. C. & Taylor, B. (1980). The biological approach to adolescence: biological chang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117-1551). N.Y.: Wiley.
- Petersen, A. C., Crockett, L., Richards, M. & Boxer, A. (1988). A self-report measure of pubertal status: reliability, validity, and initial nor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117-133.
- Richards, M. H., Boxer, A. M., Peter, A. C. & Albrecht, R. (1990). Relations of weight to body image in public girls and boys from two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13-321.
- Rogers, D. (1985). *Adolescents and youth*. (5th ed.). N.J.: Prentice-Hall.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 J.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Middletown,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einhart & Winston Inc.
- Secord, P. F.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 Sontag, M. S. &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35-44.
- Stuart, G. W. (1983).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St. Louis. Mosby.
- Stuart, G. W. & Sundeen, S. J. (1995).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5th ed), Mosby.
- Tobin-Richards, M. H., Boxer, A. M. & Petersen, A. C. (1983).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physical development*. In Brooks-Gunn, J. & A. C. Petersen(eds.), Girls at puberty: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127-154. N. Y.: Plenum.